

성모승천 대축일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1,4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성모승천 대축일

오늘은 성모님의 승천축일입니다. 예전에는 “몽소승천(蒙召昇天)”이라고 했는데, 그 말뜻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부르심을 받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의 ‘몽소승천’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는 예수님의 ‘승천’과는 구분됩니다. 몽소승천은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迎入)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능동적이지만, ‘마리아의 몽소승천’은 피동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례서 안에서는 몽소승천이라고 하지 않고, ‘성모승천 대축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로 “몽소승천”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자로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몽소승천으로 성모마리아는 인간의 삶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먼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천사의 아침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1,38)라고 천사의 알림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이라고 엘리사벳이 기쁨 중에 노래를 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모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았기에 행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셨고, 그렇게 “몽소승천”이라는 축복을 받으셨기에 행복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유는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성모님처럼 살아갈 때, 성모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건없는 응답과 믿음에 가득 찬 순명은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승리’ 축일인 성모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경축하고 기리는 참 뜻은 나 자신도 승리를 위한 신앙의 갑옷을 입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투구를 쓰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나는 성모님께서 이미 받으신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성모님께로부터 배우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모님과 함께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로 달려가는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모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 안에서 순명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모승천”이라는 영광을 나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나의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먼저 그 영광을 받으신 성모님을 따라, 나 또한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봅시다.

“바티칸 성당의 피에타상”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말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면 정문 오른쪽의 첫 번째 공간에 성모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아 안고 계시는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 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피에타 상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피에타 상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싸인이 있는 작품입니다. 아무도 이 피에타 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가서 자신의 이름을 성모님의 옷 자락에 조각했다고 합니다.



둘째,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데, 아들보다 더 젊게 조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모님의 신심이 깊다하여도 “아들보다 더 젊은 어머니는 없다”고 미켈란젤로의 제자들이 말하자, 미켈란젤로는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주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주름이 많은가?”하고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하자, 미켈란젤로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迎入)되었다.”는 교의를 발표함으로써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신자들이 믿어 왔던 신비였는데 교황 비오 12세께서 1950년 이를 교의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록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흘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루카1,46-55)



이 노래는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의 찬미가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성모의 노래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 노래를 바치며 이 노래를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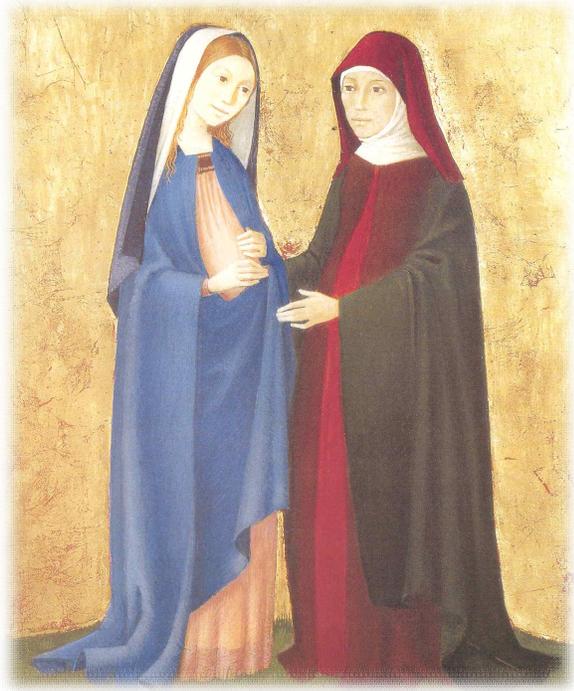
1.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앙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알게 되면 당연히 감사와 찬미가 우러나옵니다. 성모님은 자신 안에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알고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어머니를 본받아 오롯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느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오롯하게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인

지금 마리아는 당신 태중에 내려오신 구세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음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들은 하느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그 누가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느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사도들도 최고의 회에서 매질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기에 기뻐하였습니다(참조: 사도 5,40-41).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3. 거룩한 신분으로 바뀐 신앙인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을 하느님께서서는 그 어느 여인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거룩하게 신분이 바뀌신 것처럼 나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라는 말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신앙인

하느님께서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서는 들어 주셨고, 하느

님께서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언제나 주님의 자비를 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으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비는 자비로 갚고, 사랑은 사랑으로 갚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5. 겸손한 신앙인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흘으셨습니다.”(루카1,51)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청하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6.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자들을 들어 높이는 것과는 반대로 하느님께서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눈으로 겸손하게 나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7. 자비를 베푸는 신앙인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귀한 것을 바치는 이들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고, 더 귀한 선물을 내립니다. 그것을 받은 이들이 다시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바치고,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려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1,53) 하느님께서 작은 은총에 감사하며 내 옆의 굶주린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

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8. 약속을 지키는 신앙인

하느님께서서는 성실하게 계약을 지키시고 항상 믿는 이들을 눈여겨보아 주십니다. 당신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언제나 당신 자녀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다.”(루카1,54)는 것은 친히 당신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셨던 계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이들은 하느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서원한 것들은 행해야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더욱 큰 은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성모님의 몽소승천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빛이요 생명이며 사랑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몽소승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영광이요, 약속이요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성모님의 승천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간다면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렇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이요, 나의 희망입니다.